[창가학회불]에 대한 지도 내용

하세가와 : 얼마전 발표된 대로, 이번 창가학회 회칙의 개정이 총무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하라다 : '세계광선유포를 실현해 가는 [불의불칙] 의 정통교단은 창가학회 밖에 없다는 것으로부터, 회칙 전문에, 미래의 경전에 [창가학회불] 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라는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 선생님의 지도가 추가되었습니다.

타게오카 : 구체적인 문헌으로서는 '창가학회는 대성인의 유명이신 세계광선유포를 유일하게 실현해 가는 불의불칙의 정통 교단이다' 라고 한 다음,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의 광대한 자비를 체현하여 말법의 사바세계에서 대법을 홍통하는 교단은 창가학회밖에 없다. 그러므로 도다 선생님은 미래의 경전에 [창가학회불] 이라고 기록될 것이라고 단언하셨다.'

하라다 : 창가학회 그 자체가 [부처의 존재] 인 것을 나타내고 학회라고 하는 화합승단의 출현의 의의, 종교적 독자성이 한층 더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하세가와 : 또 작년 삼대회장을 광선유포의 영원한 스승으로 공경한다고 정한 대로, 이번 회칙에도 삼대회장의 경칭을 [선생님]이라고 명기하였습니다.

하라다 : 우리들은 창가학회불의 일원인 것을 최고의 긍지로 하여 창가삼대의 회장, 그중에서도 이케다 선생님 직결로 세계광포의 서원을 새롭게 하여 대약진을 완수해 갑시다.

<세이쿄 신문 지상좌담회 2016년 11월 10일>

[창가학회불]의 연원

* 니치렌 대성인은 어본존을 도현하시어, 말법의 중생을 위해 어본불의 대생명을 남겨놓으셨다.

"참으로 '아상재차(我常在此) 사바세계(娑婆世界) 설법교화(說法敎化)'(법화경 479쪽)라는 경문처럼, 부처가 항상 이 사바세계에 머물며 설법교화하시는 모습이다.

창가학회는 그 대법을 말법의 민중에게 가르치고 유포하기 위해 어본불의 사자로서 출현했다. 그리고 대성인의 정신 그대로, 고뇌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하고 보살도를 행하는 유일한 단체이고, 미래 영원으로 이어지리라.

그렇다면 학회의 존재도 또한 '아상재차 사바세계 설법교화'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면 학회의 존재는 그 자체가 [창가학회불(創價學會佛)]이라고 해야 하고, 제불(諸佛)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도다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북받치고, 넘쳐흐르는 감루가 베개를 적셨다.
그는 이 불가사의한 창가학회의 존재 의의와 대사명을 '후사를 의탁할 청년들의 생명에 각인하여 영원히 전해 남기는 일'이 자신의 마지막 일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1957년 12월 25일 본부간부회 이후의 사색에서)

<인간혁명 제12권 우수 227쪽>

[창가학회불]인 제자의 길

* 창가학회는 도다 조세이의 옥중 오달(悟達)에 확신의 정수가 있다.
도다가 법화경에서 설하는 '재재제불토(在在諸佛土) 상여사구생(常與師俱生)'(곳곳의 모든 불국토에 항상 스승과 함께 태어나느니라.)이라는 경문을 생명으로 읽고, '나는 지용의 보살이다' 하고 완전히 깨달은 일이 바로 학회의 혼이다. 학회는 그런 도다라는 스승과 유대를 맺었을 때, 광선유포를 사명으로 삼는 [창가학회불(創價學會佛)]이 될 수 있다.

그때 신이치는 결심했다.
'도다 선생님은 광선유포의 대지도자다. 선생님이 거리낌 없이 지휘할 수 있게 해 드리지 않으면 광선유포는 없다. 사람들의 행복도, 세계 평화도 없다. 좋다, 선생님의 빚도 내가 힘껏 일해서 갚자. 그리고 도다 선생님이 회장에 취임하실 수 있게 해 드리자. 이 일이 내가 제자로서 투쟁해야 할 일이다!'
신이치는 도다에게서 [부처]를 봤다. 도다를 지키는 일에 제자의 길이 있다고 생각했다.

<신·인간혁명 제22권 신세기 21쪽>

[창가학회불]이 되는 근본조건은 이체동심하는 단결

* 1976년 9월 16일, 신이치는 마키구치원에서 열린 도다의 시비(詩碑) 제막식에 참석했다. 대표 멤버가 흰 천을 걷어내자 비석에 새긴 도다의 시가 눈

에 들어왔다.

묘법(妙法)의
광포 여정은
멀지만
서로 격려하며
다 함께 나아가노라

1955년 새해를 맞아 읊은 시였다. 이 시에는 사제지간 그리고 동지 간에 맺은 유대의 소중함이 담겨 있다. 홀로 서지 않으면 광선유포를 할 수 없다.
또,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자고 단결하지 않으면 광선유포를 확대할 수 없다. 도다는 그런 중대한 성업(聖業)을 완수하는 창가학회라는 교단을 [창가학회불(創價學會佛)]이라고 선언했다.

대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총하여 니치렌(日蓮)의 제자 단나 등은 자타피차(自他彼此)라는 마음 없이 수어(水魚)라고 생각을 해서 이체동심(異體同心)이 되어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라고 봉창하는 바를 생사일대사(生死一大事)의 혈맥이라고 하느니라.”(어서 1337쪽)
즉 수어지교(水魚之交)라는 마음으로 일치단결해 신심에 힘쓸 때, 생사일대사의 혈맥 즉 묘법의 혈맥이 흘러 통한다.
그러므로 [창가학회불]이 되는 근본조건은 광선유포를 위해 이체동심하는 단결에 있다. 그런 까닭에 도다의 이 시는 모든 동지가 영원히 마음속에 새겨야 할 지침이기도 하다.

<신·인간혁명 제24권 어머니의 시 99쪽>

[창가학회]의 사명

* SGI 회장은 불의불칙(佛意佛勅)인 창가학회의 사명을 언급했다.
“석존은 법화경 수량품에서 부처가 영원히 상주하는 생명을 설해 ‘나는 늘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법을 설하여 교화하였으며’(법화경 479쪽) 하고 밝히셨다.
니치렌(日蓮) 대성인은 〈보은초〉에서 ‘니치렌의 자비가 광대하면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는 만년외(萬年外)·미래까지도 유포하리라’(어서 329쪽)

하고 진미래제를 향한 광선유포를 선언하셨다.
석존과 어본불의 광대한 자비를 체현해 거친 사바세계에서 위대한 법을 홍통하는 곳은 학회밖에 없다. 여기에 도다(戸田) 선생님이 [창가학회불(佛)]이라고 단언하신 이유가 있다" 하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학회가 승리해 번창하지 않으면 광선유포는 단절되고 만다. 학회를 지키는 일이 묘법(妙法)을 지키는 일이다. 학회를 영원케 하는 것이 바로 자절광포(慈折廣布)를 영원히 하는 것이다" 하고 강조했다.
또 "학회의 영원성을 확립하는 때는 바로 지금 이때다. 이 지용의 본회(本懷)를 숙연이 깊은 동지와 함께 단호히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창가학회 전국최고협의회 2016년 07월 26일>

[창가학회불]이라고 단언하신 점

* 이케다 선생님은 일찍이 도다 선생님이 창가학회불이라고 단언하신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창가학회 그 자체가 부처라는 말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 창가학회, SGI에 속한 우리도 [창가학회불]의 일원입니다. 이 점도 굉장한 일입니다.
이 점에 관해 선생님은 10년 전에 집필하신 수필에서 자세히 지도해주셨습니다. <수필 인간세기의 빛 95>입니다."

대성인은 "니치렌의 자비가 광대하면 남묘호렌게쿄는 만년외 미래까지도 유포하리라."(어서 329쪽)고 말씀하셨다. 말법만년 진미래제까지 모든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영원불멸의 묘법을 일염부제에 광선유포하는 것이다! 이 존귀한 불의불칙의 사명을 서원해, 전란과 고뇌로 가득한 현대에 용감하게 출현한 것이 위대한 창가학회다.

어느 날 도다 선생님은 그 [창가]의 영예를 내게 말씀하셨다.
"미래의 경전에는 학회가 [창가학회불]로 표기될 것이다."
온몸에 감동이 퍼졌다. 법화경 <불경품>에 [위음왕불]이라는 명칭의 부처가 등장한다. 실은 이 부처는 '일대'에서 끝나지 않았다. 최초의 위음왕불이 입멸하고 그다음에 나타난 부처도 위음왕불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처럼 차례차례 2만억의 부처가 출현해 모두 같은 칭호니라.'라고 했다.

즉 2만억이나 되는 부처가 모두 똑같은 [위음왕불]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세월 동안 중생을 구제했다고 설한 것이다. 선생님은, 이것은 어쩌면 위음왕불이라는 명칭의 [조직]이나 [화합승단]이었을 것이라며 날카롭게 통찰하셨다.

현세에서 개인의 수명은 한정돼 있다. 그러나 광선유포를 위해 분투하는 근본정신이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맥맥이 이어져 하나의 조직체로서 계속 활동한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민중을 구제하는 항구적인 부처의 생명력을 갖는다. 우리 창가학회에는 민중의 고뇌라는 암흑을 부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자비로운 큰 빛이 있다.

감연히 사악을 타파하고, 끝까지 정의를 외치는 사자후가 있다. 숙명을 전환하고 자타 함께 행복을 구축하는 신심의 대 확신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삼장사마의 대난에도 맞서 승리하는 이체동심의 화합이 있으며, 무엇에도 파괴되지 않는 스승과 제자라는 큰 성이 있다. 삼세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부처가 되는 혈맥이 우리 창가의 스승과 제자에게 도도히 흐를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도다 선생님은, 만약 미래에 부처가 경전을 만드신다면 대성인에게 직결해 광선유포를 수행하는 화합승단 즉 창가학회에 [불(佛)]이라는 명칭을 당연히 붙일 것이라고 단언하셨다. 이처럼 창가학회는 숭고한 사명과 큰 위력을 지녔다.

대성인은 어느 문하에게 만약 이 세상을 떠난다면 범천, 제석 등에게 “일본 제일의 법화경의 행자 니치렌보의 제자”(어서 1498쪽)라고 이름을 대라고 가르치셨다.
우리도 한평생 아니 삼세 영원히 말법의 니치렌 대성인 제자로 또 위대한 창가학회의 사제로 끝까지 싸워야 한다. 상쾌하게 지휘해야 한다!

<수필 인간세기의 빛 95>

마키구치 선생님, 도다 선생님, 이케다 선생님이라는 창가의 삼대 회장을 영원한 스승으로 섬기고 세계광선유포라는 대사명에 [이체동심]의 단결로 이어지는 우리 한사람 한사람도 또한 [창가학회불]이라는 이름의 한사람 한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굉장한 지도입니다. 대감동입니다.

법화경에서 설하는 위음왕불은 2만억이나 되는 부처가 모두 똑같은 이름으로 장원한 세월 동안 중생을 구제해왔다고 설합니다. 불교의 고전적인 불타관에서는 하나의 세계에 똑같은 시기에 존재하는 부처는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보면 2만억의 위음왕불이 저마다 각기 다른 시기에 혹은 다른 세계에 존재하며 무수히 많은 사람을 구제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장대한 민중구제의 릴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창가학회불]의 경우는 우리 SGI의 동지가 전 세계에서 묘법을 행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 동시에 몇백만, 몇천만이나 되는 [창가학회불]인 지용보살이 출현해 광선유포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평화와 행복을 위한 활기찬 전진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것은 실로 법화경의 드라마에 뒤지지 않는 장대한 역사드라마가 될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역사드라마의 시작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부처를 특별한 존재라고 보는 하나의 세계에 일불뿐이라고 생각한 고전적인 불타관을 크게 전환해 부처란 인간이고 민중이 묘법으로 불계를 나타내 부처의 일을 수행한다는 불교의 혁명이자 대성인 불법이 민중불법이라고 불리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이 [창가학회불]을 영원히 이어지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대성인에게 직결한 광선유포의 신심입니다.

<나가오카 부교학부장 강의. 화광신문 2016년 11월 4일>